

# 최근 가나 경제 동향

(‘14. 9. 23)

아크라사무소 개설준비위

## 1 주요 경제지표

- 물가 : 2014. 6월 15% → 7월 15.3% → 8월 15.9%(56개월만에 최고치)
- 세디화 : 2014. 1월 ~ 9월초 26.9% 절하
- 전기료 : 2013. 10월 25%, 2014. 1월 9.7%, 2014. 7월 12% 등 인상
- 수도료 : 2013. 10월 52%, 2014. 7월 6.1% 등 인상
- 휘발유 : 2013. 2월 리터당 1.7 세디 → 2014. 6월 3.36세디(97.6% 인상)
- 이자율 : (중앙은행 재할인율) 19%(6.9일 18%에서 19%로 인상)  
(국채수익률) 91일 만기 24.1%, 182일 21.3%, 1년 22.5%, 2년 23.5%
- 외환보유 : 2014. 6월말 44.7억불(수입액의 2.5개월분)  
2013년말 26.3억불(수입액의 3.1개월분)보다 감소
- 무역수지 : (2013년) 수출 138억불, 수입 176억불, 무역수지 38억불 적자  
(2012년) 수출 135.4억불, 수입 177.6억불, 무역수지 42.2억불 적자
- 2014. 7. 16. 가나 정부는 32억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, 경제운용 목표도 일부 수정하였음.
  - 경제성장률 : (기준) 8.0% → (수정) 7.1%
  - \*원유부문 제외시 : (기준) 7.4% → (수정) 6.6%
  - 인플레이션 : (기준) 9.5% (±2%) → (수정) 13.0% (±2%)
  - 재정적자 : (기준) GDP의 8.5% → (수정) 8.8%
  - 총외환보유고 : 수입액의 3개월치(기준과 동일)

## [추가경정 예산안]

- 세출 증액 : 약 32억 세디(약 10억불 수준) \* 세디/달러 = 3.3 가정시
  - 이는 기존 세출예산 349.7억 세디의 약 9% 수준임.
- 세출 증액부문 : 공공부문 임금(2.5억 세디), 이자(17.1억 세디), 공공 요금/유류 보조금(5.7억 세디) 등
- 예상 재정적자 : 101.3억 세디(GDP의 8.8%)

## 2 가나-IMF 정책협약

- '14. 8. 1, 마하마대통령은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가나 경제의 안정, 성장,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아래 사항을 지시하였음.
  - 가나 경제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부여하기 위해, 자유로운 외환체제를 유지할 것을 재확인함.
  - 기업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디화 안정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임.
  - 국내산 가스 공급개시를 앞당겨, 보다 저렴한 발전 연료를 사용하고, 외환 시장에 부담을 줄일 것임.
  - IMF 및 기타 개발협력 파트너와 경제 안정화/성장을 위한 협의를 즉시 개시
- 8. 3(일), FT는 상기 보도자료와 가나 재무부장관(Seth Terkper) 인터뷰를 인용, 가나 정부가 IMF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함.
  - 올해 들어 가나 세디화가 40% 평가절하되어(시중환전 기준) 전 세계 통화 중 가장 약세를 기록했으며, 사하라 이남 국가 중 잠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IMF 지원을 요청함.

- 2007년 남아공에 이어 사하라 이남 국가 중 두 번째로 국채발행(10년 만기 7.5억불)에 성공하여 아프리카의 경제/정치발전의 모델이 되었던 가나의 IMF 지원요청은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줄 것임.
- Terkper 장관은 마하마 대통령이 IMF와 논의개시를 지시했으며, 당면 관심사는 세디화 안정과 재정적자 축소에 있다고 함.
- 원유생산이 시작된지 3년이 경과했지만, 지난 2년간 공공부문 임금이 75% 인상되면서, 두자리수 재정적자(2013년 GDP의 10.2%)와 급속한 물가 인상을 겪음.
- 2014년 재정적자 목표가 GDP의 8.5%지만, IMF가 재정 적자규모를 10.2%로 전망한 것을 비롯하여, 10% 이하로 축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.
- 올해 들어 가나 국채발행 일정이 연기되어 왔지만, Terkper 장관은 IMF와의 협의를 계기로 시장에서 가나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이 개선될 것이라며 수주내에 10억불 규모의 10년 만기 국채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.
- 8. 8(금), Hannah Tetteh 외무부장관은 미-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시 “가나가 원하는 것은 IMF 구제금융이 아니라, 가나의 재정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IMF의 승인을 받는 것”이라고 언급
- 8. 8(금), IMF는 가나정부로부터 협의요청을 공식 접수했으며, 가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있다는 보도자료 발표
  - IMF 팀이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정책협의 예정
- IMF 사무소장을 면담(8.14)한 바에 따르며, IMF팀의 주요 임무가 가나 정부의 정책을 검토하고, 재원 소요를 측정할 예정으로, 지난 4월에 발표된 IMF의 가나 정책권고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필요한 지원요소를 파악할 것이라고 함.

## [IMF의 정책권고(“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”)] (2014. 4.21.)

- 재정정책
  - 세수확보(부가가치세(2.5%) 인상, 비과세 축소, 기존 비과세 제품에 추가 과세, 유류제품에 종량세 부과, 비상업용 주택 임차료 과세 등
  - 지출축소 :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, 공공부문 초과이원 충원금지, 자본 지출 민영화 등
- 통화정책 : 재할인을 인상(필요시 추가 긴축금융),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, 외환시장의 과도한 규제 완화, 외환보유고 확충 등

### 3 경제 평가 및 전망

-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가나-IMF 정책협약이 일단 대외투자자들의 신뢰 악화는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.

(Standard Chartered 아프리카 연구책임자 논평 (8.2.) )

- IMF 프로그램이 가나 정부의 재정개혁이 보다 진지하게 추진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전망
- 잠비아의 경우, IMF 협의개시 발표를 계기로 유로본드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를 봤음.
- 다만, 협의개시 자체만으로는 세디화의 가치안정에 충분치 않을 전망
- 영국 시사주간지 Economist는 가나 정부의 재정개혁을 요구함(8.9)
  - 가나의 성장률이 2013년 4.4%로 하락했지만, 가나는 그 이전부터도 6% 수준의 성장을 해왔으며, 앞으로도 수년간 6~9% 성장 전망됨
  - \* 민간부문의 부채수준이 낮고, 2000년 초반만 해도 공공부채가 GDP의 40% 수준으로 경제 펀더멘털이 양호하여, 2007년 유로본드 발행은 성공적이었음.

- 그러나, 최근 공공부채가 급증한 것이 가나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이며, 주요인은 공공부문 임금증가임
- \* 2012년의 경우 공공부문 임금지출이 정부수입의 70%를 차지
- \* 공식통계에 따르면 GDP의 50% 수준이지만, Fitch는 GDP의 62%로 평가.  
(가나 정부 공식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(2013년말) 55.77% → (2014. 5월말) 54.8%로 소폭 개선됨(달러화 기준)
- \* 2013년 재정적자가 GDP의 10.1%, Fitch는 향후 2년간 8% 이상 기록 전망
- 가나 정부가 최근 유류보조금 지급을 재개하며, 그간 추진해 왔던 유류 보조금 철폐정책을 변경
- 국제 금가격 하락,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(2013년 GDP의 12.3%)으로 세수 확보와 외화획득에도 어려움이 가중됨.
- IMF는 공공부문 지출억제, 임금동결, 정부보조금에 관한 일관된 정책의 추진, 일부 전력, 수도 회사의 민영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.
- 가나 정부가 IMF 정책협의 발표로 대외신인도 제고를 추진하는 한편, 최근에는 10억불의 유로본드(달러화 표시 국채) 발행(9.11)을 단행하여, 세디화 환율 안정에 나섬.
- 세디 환율도 8월 중순을 기점으로 반등세를 보이고, 유로본드 발행을 통해 일단 부족한 외화 유통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됨.
- 다만, 가나 경제가 만성적 대외수지 적자, 국내 제조기반의 취약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어 단기간에 경제가 안정화를 보이기보다는 주요 경제변수에 따라 환율 등 지표 등락이 예상됨.
- \* 자료원 : 2014. 9. 16(화) 주가나대사관 통상투자진흥회의시 이경식상무관 발표 자료(주요 통계는 가나 정부/중앙은행 발표자료 인용)